

# 숙련된 간호사 지속근무 가능한 일터 만들자

## 간호사 적정인력 배치 '세이프 스태핑' 준수해야

### 간호사 근무환경, 환자결과와 간호사 웰빙에 직접적 영향

다.

5월 30일 열린 2017 ICN 학술대회에서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환자 대 간호사 비율, 환자안전과 간호의 질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연자들은 "간호사를 충분히 배치하고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할 때 간호결과와 간호의 질이 향상된다"면서 "근무환경이 좋아야 우수한 간호사를 오래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이직률이 감소되며, 간호전문직의 역량이 강화된다"고 입을 모았다.

'변혁적 돌봄을 위한 세이프 스태핑(Safe staffing to transform care)'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린다 에이肯(Linda Aiken)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환자결과 및 간호사의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간호사 세이프 스태핑에 투자해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거기반간호를 실천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많은 나라에서 간호정

책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이肯 교수는 환자 대 간호사 적정비율, 간호사 근무환경 등의 연구분야 권위자이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학사학위 간호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수술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 같은 공로로 ICN이 수여하는 크리스천 라이만상을 받았으며, 시상식은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열렸다.

에이肯 교수는 강연을 통해 "유럽 9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 병원에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가 1명 더 늘어날 때 수술환자의 사망 위험이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학사학위 간호사의 비율이 10% 늘어나면 수술환자의 사망 위험이 7%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인력배치를 잘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때 사망률 감소 등 환자결과가 좋아지고, 환자만족도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마그넷병원은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 연/구/결/과

####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적을수록

#### 수술환자 사망률 감소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학사학위 간호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수술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린다 에이肯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교수팀의 연구논문 '유럽 9개국에서의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간호사 교육수준, 병원 사망률 : 후향적 관찰연구'에서 밝혀졌다.

연구팀은 유럽 9개국 300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50세 이상 환자 42만2730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환자를 직접 간호한 간호사 2만6516명을 대상

으로 조사했다.

9개국은 벨기에, 잉글랜드,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이다.

이번 연구의 분석대상 수술환자 중 입원 30일 이내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은 9개국 평균 1.3% (5381명)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병원에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가 1명 더 늘어날 때 수술환자의 사망 위험이 7% 증가했다. 학사학위 간호사의 비율이 10% 늘어나면 수술환자의 사망 위험이 7%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사의 60%가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간호사 1명당 평균 6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30%가 학사학위가 있고, 평균 8명의 환자를 돌보는 병원에 비해 수술환자 사망률이 약 30% 낮았다.

자와 간호사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고 있다.

진 헤이트(Jean White) 영국 웨일즈주 간호국장은 웨일즈주에서 '간호사 배치법(Nurse Staffing Levels Act)'을 2016년에 제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2017 ICN 학술대회에서는 숙련된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간호사를 적정인력 배치하는 '세이프 스태핑'이 정착돼야 환자안전과 간호의 질이 보장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채택한 간호정책 슬로건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과도 일맥상통하는 주제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병원, 간호사가 떠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어야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세이프 스태핑(safe staffing)'은 간호사들의 업무량, 숙련도,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해 적정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적정 수만큼 배치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간호사를 몇 명 배치하느냐를 넘어서 업무량, 숙련도, 환자 중증도, 비용효율성, 근무환경 등을 포괄하는 것이 '세이프 스태핑'이다.



기조강연

학술대회에서는 매일 오전 첫 프로그램으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지구촌에서 모든 간호사들이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



학술프로그램

간호교육·연구·실무분야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학술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포스터 발표

세계 간호사들의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논문들이 포스터로 발표됐다.



정책 카페

ICN은 매일 절실히 활용해 정책카페를 운영했다. 간호사들이 강연자와 패널들을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자리였다.

## 간호사, SDGs 달성을 위해 앞장서 목소리 내고 행동하라

지속가능개발목표



"간호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라."

국제간호협의회(ICN)가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를 통해 강조한 이 같은 메시지는 2017 ICN 학술대회에서 주요 연자들이 모두 언급할 정도로 횟이수로 다뤄졌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년)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2000~2015년)를 잇는 국제사회와의 새로운 목표이다.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됐다.

이중 셋째 목표인 '건강과 웰빙'이며,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다.

ICN은 "SDGs 달성을 위해 간호사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는 SDGs 달성의 성공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인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셋째 목표인 '건강과 웰빙'은 간호사가 왜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 종식, 양질의 교육 등 다른 목표에도 간호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와 여성의 힘 북돋우기'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줄리아 덩컨-캐슬(Julia Duncan-Cassel) 라이베리아 여성부 장관은 "간호사는 세계 보건 향상을 위해 앞장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

책결정과정에 참여해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간호사 없이 간호 관련 논의가 이뤄지거나 정책이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은 뒤에서 일하고, 남성은 앞에서 일한다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에볼라 사태 때 김연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던 이유는 환자를 보살피는 일을 주로 여성들이 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보건의료와 간호교육의 변화: 새로운 단계로 비상하기' 주제로 강연한 로와이다 알-마이타(Rowaida Al-Maaitah) 요르단 국가여성건강위원회 부위원장(요르단과학기술대 간호대학 교수)은 "SDGs 보건분야 목표는 MDGs에 비해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됐다"면서 "간호사와 같이 잘 준비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글로벌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1.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3. 건강과 웰빙
4. 양질의 교육
5. 양성평등
6. 깨끗한 물과 위생
7. 지속 가능한 에너지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 혁신과 인프라 구축
10. 불평등 완화
11. 지속 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13. 기후행동
14. 해양생태계 보호
15. 육상생태계 보호
16. 평화와 정의 및 제도 구축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들에게 혁신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확대해 인간의 건강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임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혜진 기자 hjooh@

### 일차보건의료 혁신 모델

네덜란드 방문간호 '뷔르트조르흐'

5월 28일 열린 2017 ICN 학술대회에서는 간호사가 주도해 나가고 있는 일차보건의료 혁신 모델 성공사례들이 소개됐다.

먼저 네덜란드 'Buurtzorg(뷔르트조르흐·지역주민 돌봄)' 설립자이며 대표인 요스 드 블록(Jos de Blok) 간호사가 연자로 나섰다.

Buurtzorg는 방문간호팀이 동네 주민(재가환자)들을 찾아가 집 높은 케어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모델이다.

블록 대표는 2007년 방문간호팀을 창업해 네덜란드 정부가 인정하는 모델이 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현재 900개 팀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만명 이상의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지불된다.

수준 높은 간호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을 충실히 활용하며,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케어 시스템이다. 동네마다 있는 주치의(General Doctor)가 간호사들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협력해주고 있다.

블록 대표는 "Buurtzorg는 더 많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때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혜진 기자 hjooh@

예방과 치료기간 단축 등을 유도해 비용을 40% 수준까지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간호사)와 환자가 모두 큰 만족도를 보이는 모델"이라며 "정부에서는 다른 보건의료서비스가 Buurtzorg처럼 운영되도록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 대표는 지난 2013년 신경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미래형 국민건강 케어 모델' 대토론회에 참석해 강연한 바 있다.

당시 블록 대표는 "위계질서와 형식주의 대신 방문간호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 성공비결"이라면서 "지역사회는 간호사가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매력적이며, 혁신은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틴 한센-터튼(Tine Hansen-Turton) 우즈(Woods) 대표는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간호사 주도의 일차보건의료 모델인 'Nurse-Managed Health Clinics(NMHCs)'와 'Retail Clinics'를 소개했다.

틴 한센-터튼은 "글로벌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는 바로 간호사"라며 "간호사보다 더 건강소비자를 잘 돌볼 수 있고, 더 정직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는 건강소비자들이 스스로 더 나은 건강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간호사들이 갖고 있는 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때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혜진 기자 hjooh@